

임업·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 중점추진

- 노동부, 재해자 1만명 감소를 위한 하반기 대책 발표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발생한 산업재해자수는 45,205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145명(2.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재해가 감소($\Delta 2,142$ 명, $\Delta 11.9\%$)한 반면, 임업($\uparrow 619$ 명, $\uparrow 85.4\%$)과 서비스업($\uparrow 807$ 명, $\uparrow 5.5\%$)에서는 재해가 증가하였고, 건설업 재해는 소폭 감소($\Delta 96$ 명, $\Delta 1.0\%$)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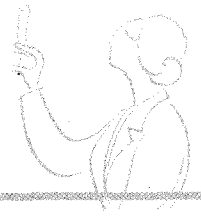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uparrow 1,433$ 명, $\uparrow 10.4\%$)에서만 재해가 증가했고, 유형별로는 협착·추락 재해는 감소한 반면, 절단재해($\uparrow 836$ 명, $\uparrow 35.7\%$)와 전도재해(미끄러지거나 넘어짐, $\uparrow 599$ 명, $\uparrow 6.6\%$)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 연말까지 재해자 감소목표 1만 명에 못 미치는 5,000명 감소, 2009.6월말까지 월별 평균 재해자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연말 추정재해자수는 90,400명이며, 2008년 재해자수 95,806명에 비해 5,400명 정도 감소에 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재해다발·증가 업종을 중심으로 기술지원과 근로자 안전교육 및 재해예방 기술자료 보급을 주 내용을 하는 하반기 재해예방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하였다. 특히, 상반기 중 재해가 많이 증가한 임업·서비스업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을 개발·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업(영림업)에 대해서는 안전공단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가 공동으로 기술자료 보급, 종사자 교육 및 안전보건 캠페인을 전개하고, 30인 이상 영림작업장에 대해 지방노동청·안전공단의 전담직원을 지정, 기술지원 및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위생서비스·건물관리·보건복지·교육서비스업에서 8만 8천 개소를 선정, 안전관리 대행기관을 통해 기술지원을 하고, 건물관리 등 24만 8천 개소에 대해서는 안전공단과 해당 직능단체(16개소)·지자체와 MOU를 체결, 캠페인, 종사자 교육, 산재예방 결의대회 및 현수막 부착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제조업에 대해서는 프레스 등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 1만 개소를 선정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끼임이나 절단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원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신종플루' 감염 산재인정 지침 마련

앞으로 “신종플루엔자A(이하 신종플루)” 발생 고위험 국가를 업무 때문에 해외 출장을 다녀온 근로자가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전 세계적인 유행과 함께 국내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주요 지침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한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신종플루 감염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지침과 관련 상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요양팀(02-2670-0318)로 문의하거나 지역 지사(1588-0075)로 연락하면 된다. ☎